로봇株 고공행진에 두산로보틱스 체급 '따따블' 기대감

정부·대기업 로봇사업 집중에 반등
레인보우로보틱스 올 주가 516%↑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매출액 1위
월등한 실적에 공모가 4배 가능성

하반기 주도주로 거론되고 있는 로봇 테마주의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주가 반등이 더욱 재촉되는 모양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조 단위 대어 두산로보틱스도 글로벌 경쟁력과 더불어 로봇 강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이달에만 40.2% 올랐다. 연초부터 이날까지는 516.8%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로봇을 국가 첨단산업 육성분야에 포함하는 등 호재가 발생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가 껑충 뛰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유상 증자에 참여해 지분 14.99%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 이날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무려 29.9% 급등했으며, 또 다른 로봇주인 뉴로메카도 함께 18.8% 가량 뛰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로보틱스의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협동로봇 시장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4위를 달성했다.

두산로보틱스가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은 2만1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상단기준 시가총액은 1조6853억원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급성장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의 체급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1위 협동로봇 기업일 뿐더러 지난해 매출을 비교했을 때, 레인보우로보틱스보다 월등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로보틱스의 지난해 매출은 450억원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매출액(136억원)과 약 3배 차이가 난다.

서재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의 2018년부터 2022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46.1%를 기록했다"며 "동기간 협동로봇 전체 시장 규모가 연평균 15.9% 성장한 것을 고려했을 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국내 로봇 경쟁사들의 주가 강세로 인해 상승한 밸류에이션과 시장 기대감을 고려하면 두산로보틱스의 상대적인 평가가치(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연이다.

또한, 두산로보틱스의 제품 라인업은 총 13개로, 글로벌 로봇 1~3위 기업인 유니버설 로봇(Universal Robots)이 5개, 화낙(Fanuc) 7개, 테크맨 로봇(Techman Robot) 10개인 것과 대비해 제품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가 글로벌 최상위 3위 협동로봇 솔루션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쟁사 대비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유니콘특례 요건으로 상장을 추진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노동력 공급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되는 협동로봇 수요 증가를 감안한다면 이익 달성 시점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양의 부산 기장군 장안읍 2차전지 생산공장 조감도. /금양

금양, 8000억 투자해 2차전지 공장 '첫삽'

부산 기장군서 건립 기공식 열어
3억셀 규모 생산시설 갖출 예정

코스피 상장사 금양이 부산 기장군에 대규모 2차전지 제조 공장을 짓는다. 오는 2026년까지 총 8000억원을 투자해 4만평 규모에 3억셀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면 명실공히 2차전지 제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금양은 11일 오전 기장군 장안읍 오리 소재 동부산 이-파크(E-PARK)일반산업단지에서 '2차전지 생산공장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공식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류광지 ㈜금양 회장,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양은 연면적 약 4만 평 2층 건물에 3억 셀 규모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내년까지 건립하고 2025년부터 본격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부산시와 금양은 2차전지 생산시설 건립 등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장이 가동되면 10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양은 기존 발포제 사업과 연관된 정밀화학 사업에 진출하고자 지난 2019년 부산 사상구 본사에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하면서 2차전지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고 2022년 4월 배터리 셀 개발을 완료해 전기적 특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올해 3월 본사에 700만셀 2차전지 공장 준공 및 인허가를 완료해 상업용 생산에 들어갔다. 5월에는 본사에 에너지기술퀀텀 센터를 준공했고 오는 12월에는 1200평 규모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95 연구개발(R&D)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아울러 콩고와 몽골에서 진행 중인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2차전지의 주요 원재료인 리튬의 채굴 및 가공부터 이차전지 생산과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2차전지 밸류체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2차전지 핵심사업 부분인 양극재 시장의 게임체인저를 목표로 하이니켈계 단결정 양산 기술을 보유한 에스엠랩의 지분을 최근 인수한 바 있다.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30% 이상은 기장 군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주민분들과 상시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며 "금양은 전기차가 주도할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가는 원통형 배터리시장의 리더가 되고, 부산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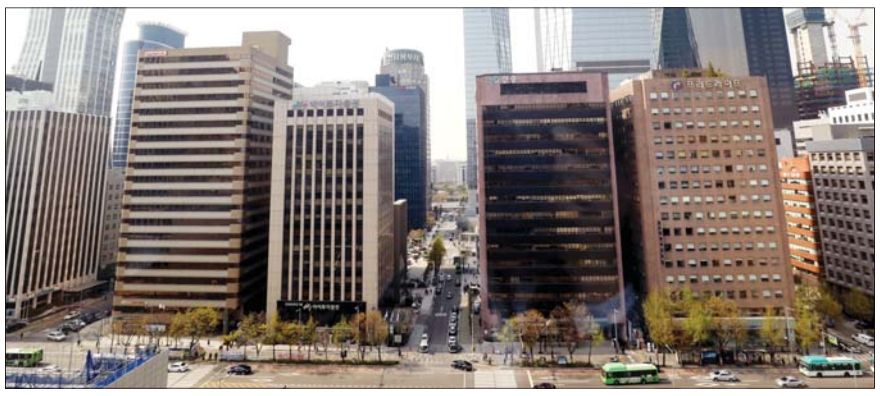
증권사, 신사업 위해 전문인력 확충 경쟁

한투·삼성증권 하반기 공개채용 나서
유안타·토스·카카오 경력 상시 모집

주요 증권사들이 신사업을 위해 토큰증권(STO) 등 정보기술(IT) 부문 인재와 경력자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최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섰으며 유안타·토스·카카오페이증권 등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경력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프라이빗 뱅커(PB) 및 금융영업마케팅, 본사 영업, 운용, 리서치, 본사 관리, 디지털, 플랫폼 등에서 정규직 신입 사원을 채용키로 하고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직무역량 평가를 거친 후 면접과 채용 검진,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내달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뉴시스

특히,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신입사원 일반 공채를 위한 대학 채용설명회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오는 14일과 18일 각각 고려대, 서울대에서 열리는 채용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선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도 12일과 21일 연세대와 한양대에서 열리는 채용설명회에서 강연한다.

삼성증권은 이달 18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접수를 진행한다. 삼성증권의 채용 분야는 리테일, IB, 리서치, 세일즈앤트레이딩(S&T), 홀세일, IT, 경영지원 등이다.

한화투자증권도 이달 8일까지 본사영업과 지점영업을 구분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접수를 진행했다.

증권 업황 악화, 신사업 등으로 리테일과 IT 부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증권사들은 신입 채용 외에도 상시 모집을 통해 두 부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가을 이사철 앞두고 수도권 전세값 상승

0.02% 올라… 시장 불안요인 돼

서울 중구, 강남구, 광진구, 서대문구, 송파구 등에서 전월 대비 전세값이 뛰었다. 중구 신당동, 광진구 구의동, 광장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은 85㎡이하의 중소형아파트가 전세가 상승을 주도했다.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및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은 리모델링 추진과 정비사업 유망단지 가격이 반등했다.

경기는 의왕, 용인, 안산시 등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서구 청라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처럼 수도권 전체 전셋값이 반등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11일 부동산R114가 아파트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8월 수도권 전세가격은 0.02% 올라 2022년 5월(0.03%)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7월 보합(0.00%)을 기록했던 서울은 전월 대비 0.07% 올랐고, 경기지역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 0.01%를 기록했다. 인천은 2021년 12월(0.19%) 이후 20개월만에 상승 전환됐다.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등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전세대출 금리 인하와 아파트 매매가 급등이 꼽힌다. 연초 5~6%대였던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3~4%대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는 수요가 늘었고, 낮아진 가격에 갈아타기 수요가 맞물렸다. /이규성 기자 peace@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국건위·국토부·서울시 맞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는 11일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 앞으로 공동 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공동홍보 및 비전발표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보훈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상징공간이란 도시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 국가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새로운 시대가치(폐쇄→개방·소통·생태·인간중심 등)를 담아내는 장소이자 미래도시비전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시민소통공간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 전체 서울시민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국건위는 기획연구와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건축·도시적 관점(H/W)과 문화적 가치(S/W)를 접목한 통합적인 공간구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영걸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국건위가 콘트롤타워로서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